

## 自然公園의 概念

韓國國立公園協會 會長 薛 國 煥



自然公園이란 自然美·野生動植物·地質鑛物等の 自然을 그대로 保存하기 위해서 一定한 地域을 公園化하는 것을 뜻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 概念을 달리 하고 있다.

公園은 本來부터 國家管理下에 있는 地域으로 萬人이 共樂할 수 있는 곳을 뜻하므로 市民들의 休養을 위한 利用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國立公園과 道立公園이 自然公園의 範疇에 속하고 日本에서는 國立公園·國定公園·縣立公園 등이 自然公園法에 依據하여 指定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韓國과 日本에서는 自然保存을 目的으로 하는 公園의 總稱으로 쓰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國立公園과 自然公園을 完全히 區別하고 있다.

國立公園은 國家를 代表할 만한 自然景觀地로써 學術적으로도 研究의 價値가 있는 곳이며, 自然公園은 大都市에서 멀지 않은 自然景觀地로써 市民들이 餘暇에 自然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國立公園의 경우 처럼 研究職員은 配置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國立公園은 하나같이 野生動物(코끼리, 사자, 지라프, 하마, 얼룩말, 코뿔소, 타조, 플라밍고등)의 保護를 目的으로 設定하고있으며 觀光客에게 公開되는 곳은 國立公園, 一般에게는 公開되지 않고 學術研究者에게만 接近이 許容되는 곳은 自然保存地區로 指定하고 있어서 自然公園이란 述語조차 쓰이지 않고 있다.

北아메리카의 美國과 캐나다에서는 國立公園·州立公園·河川公園·海岸公園·洞窟公園 등이 모두 自然公園의 範疇에 들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總稱으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自然公園의 「아이디어」를 導入하여 都市에서 車로 1時間以內에 갈 수 있는 自然景觀地를 自然公園으로 指定하고 市民들의 休養은 勿論, 各級 學校에서 環境教育을 위한 研究地域으로 活用하도록 管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國家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公園을 찾는 休養客이 激增하는 趨勢에 있으므로 自然은 人爲的인 干涉으로 破壞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自然保護는 國家事業이지만 國民全體가 鄉土愛護의 思想을 積極的으로 發揮하여 相互協力하지 않고서는 이룩될 수 없는 일이다.

하루속히 自然公園의 概念이 確立되고 各郡마다 하나以上の 自然公園을 指定하고 「내 고향의 自然은 우리가 保存한다」는 愛鄉心을 鼓吹해야 할 것이다.